



칼빈의 경건신학

이종성

전 장신대학교 총장, 한국기독교학술원장

1. 시작하는 말

근대사회에 있어서는 구미사회가, 현대에 있어서는 전세계가 자본주의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되풀이 할 정도로 자본주의의 영향이 막강하다고 한다면, 그 자본주의를 근대화하고 나아가서는 기독교와 접목시켜 전 인류 역사를 지배하게 한 가장 강력한 지도자는 칼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단지 기독교신학세계에 있어서 거대한 한 줄기를 키워준 사람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바른 길을 가르쳐 준 신학자요 인간학자요 경륜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위대한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결코 충분치 못하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번에 <경건과 신학연구소>에서 칼빈의 신학사상 중 경건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비록 방대한 그의 사상 세계 중 극히 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 문제를 바르게 그리고 깊게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신학적 지식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한국장로교회의 바른 신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칼빈신학의 특징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있어서 칼빈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칼빈의 신학사상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일가에 대하여 많은 논쟁을 전개했다. 우리는 그들의 논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그러한 중심사상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던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성서주의

주지하다시피 칼빈은 성서전체에 관한 주석서를 썼으며(네 권은 제외), 그의 설교는 철저한 주석설교였다는 것을 보아도 그가 성서를 매우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빈이 저 방대한 기독교강요를 저술한 목적은 젊은이들이 성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잡이로 썼다.

“본 저서에서 내가 의도하는 것은 신학공부를 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언(神言)을 읽도록 하며 교육하고자 함이요 따라서 이들이 신언에로의 정도를 발견하며 방해를 받는 일이 없이 계속 신언 안에서,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누구든지 성서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참되고 정당한 교리에 관해서 매우 적은 지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고정된 원리라고 생각해야 한다”(『Inst』, I, 6, 2). 따라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성서를 알아야 한다.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아계시를 하시마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앎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바르고 전체적 지식을 가지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성서를 기록해 두셨다(『Inst』, I, 6, 3).

그러나 이 성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내적 증시를 강조한다(Testimonium Spiritus Sancti Internum).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까지는 성서는 죽은 무용지물과 같다”(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관한 설교에서). 그리고 성령이 성서의 저자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는 듀메르그(Doumergue)



는 성서가 그의 신학을 떠받쳐주는 두 초점중의 하나라고 한다(다른 한 초점은 예정론이라고 한다. 예정론에 대해서는 별 항에서 취급할 것임).

2) 신본주의

칼빈은 신을 말할 때 그의 본체와 속성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다. 창조자, 전능자, 완전자, 심판자, 구속자이시며, 인간이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로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고 한다. 그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피조계를 지배하시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성업을 수행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만 영광과 존경을 드려야 한다.

칼빈이 'soli Deo gloria' 사상에 투철해 있었다는 증거는 그가 죽은 후 그의 묘에 묘비를 세우지 못하게 한 예를 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칼빈의 모든 신학을 지배한 중심사상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신관 또는 신의 영광만이라는 사상이라고 한다(H. Weber, O. Ritschl, K. Holl). "그의 신학은 그가 신 관념을 모든 사고의 중심에 넣으려는 박력에 있다. 이것이 그의 출발점이면서 시종 그의 노작을 규정하고 인도한 것이다"(Holl).

3) 회심

그의 회심사건 때 받은 체험이 그의 모든 신학활동을 지배했다고 보는 학자도 많이 있다. 몇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다면, "칼빈의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에 억압된 것인 동시에 그를 성서에 복종시킴으로 성립되었다"(전경연). "성서 연구가 전 인간생활이 가진 은사와 열의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이 회심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佐藤繁彦). "그의 회심에서 하나님의 전능이 증명되었음을 본다(Zahn). 그의 전체교리를 일관하는 것, 즉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힘- 그 힘을 그는 회심에서 느끼고 있었다. 그의 회심의 순간이 그의 전 생애의 진로를 결정지었다고 홀은 말한다. 그러나 칼빈의 회심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자세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칼빈도 그의 회심에 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1528년 설과 1532년 설과 또는 1528년에서 1533년에 걸쳐 7년 사이에 일어난 내적 고투를 통한 회심체험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도 불분명한 사건이 그의 전 생애와 신학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주장이다.

4) 예정론

칼빈의 신학사상 중에서 가장 비판을 강하게 받는 것이 그의 예정사상이다. 이 사상 때문에 그는 살아 있는 동안에 피기우스와 불색과 카스텔리오와 격론을 벌였으며, 그가 죽은 후에는 알미니우스의 반격을 받아 그의 제자단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칼빈이 강한 예정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는 예정론과 섭리론을 유사한 것을 처음에는 취급했으나(『강요』 1539-1554) 나중에는 전혀 다른 제목인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무관심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를 맡아있는 사람처럼 모든 사건을 통치하신다(『Inst』, I, 16, 4). 이것이 곧 섭리사상이다.

그리고 예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라고 부른다. 이 섭리로써 하나님은 인류의 각 개인의 존재방식을 자신 안에서 결정하셨다. 인류는 같은 운명을 가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파멸이 각각 예정되어 있다"(『Inst』, I, 21, 5). 소위 이중예정이다.



그가 예정론을 강조하게 된 이유에 네 가지가 있다고 슈텔린은 보고 있다. (1)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고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동할 힘이 없음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2) 로마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를 무시하고 자기 의와 공적을 믿어서 그리스도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므로 이에 대답하여 그 은총을 올바르게 인식하려는 노력에서 이 생각을 강조했다. (3) 구속과 영원한 진리의 유일 절대한 교사인 성서의 가르침에 돌아가려는 의도에서 되어진 것이다. (4) 개혁자들에게는 예정론은 논리적인 문제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중심사실에서 당연히 귀결된 것이다(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 p. 208 참고). 그에게 이와 같이 강한 예정신앙이 있기 때문에 듀메르그는 예정신앙이 그의 신학사상의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사상 중의 하나라고 한다. 즉 성서주의와 예정론이라고 한다.

5) 형식적 원리

그의 사상전개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이 공존하고 있음을 발견한 학자도 있다. 즉 합리주의와 상반통합주의(Complexio oppositorum), 그리고 성서주의다. 사실 칼빈의 모든 신학적 서술에서 어떤 합리주의적 철학자 못지 않게 합리적인 논리전개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가 이중 예정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상반된 주장을 할 때도 있다. 때로는 대립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대립을 종합한다.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성서가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유일의 근거라고 하는 성서주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 세 가지가 칼빈의 신학사상을 형성하는 외곽적 형식원리라고 바우케는 말한다.

6) 경건사상

상기한 여러 신학자들과는 달리 배틀스(F. L. Battles)는 칼빈의 신학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경건사상이라고 한다(『The Piety of John Calvin』, p.17). 사실 칼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한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한다.

그는 『강요』 III.19.2와 『데살로니가전서 주석』과 『에베소서 주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경건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데살로니가전서 4:3, 7; 에베소서 1:4 주석). 칼빈은 『디모데전서 주석』에서는 더 강하게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 그것이 완성되는 곳에 부족한 것이란 없다. 그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경건에만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디모데전서 4:4,8 주석). 칼빈은 『강요』의 초판서부서(1536) 1554년 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특히 경건에 대하여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으나 그의 최종 판인 1559년 판에 있어서는 5장(6-10)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그리고 심도 있게 경건문제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경건생활은 곧 성화의 생활로 직결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칼빈이 루터와 같이 의인문제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때까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추측하는 것과 같이 칼빈신학의 출발점과 중심사상을 그의 다른 사상에서 찾아 볼 것이 아니라, 그의 경건사상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칼빈주의자들과 개혁주의신학자들이 경건신학을 경시하고 다른 곳에서 그의 신학의 출발점을 찾으려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칼빈의 경건신학

1) 경건과 학문(Pietas et Scientia)

1559년, 칼빈의 강력한 요청에 의하여 제네바시 소의회가 제네바시에 칼빈 아카데미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공표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에 의하여 이 시가 경건과 학문의 보금자리가(foster-mother)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획이 무르익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Penning). 이 선언문에 있는 것과 같이 칼빈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기 위하여 세웠는데 교육방법으로서 경건과 학문을 겸비한 일꾼을 양육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여기에 칼빈의 경건사상과 그의 사고방법, 즉 양극의 조화(Complexio oppositorum)가 나타난다.

이 교육철학에 의하여 칼빈아카데미가 운영되었다. 1559년에 시작되던 첫 해에 전 유럽에서 약 900명의 청년들이 모여들어 경건과 학문의 교육을 받아 전 구라파를 복음화 하는 복음의 화살이 되었다(이 학교는 현재 제네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계속되고 있다).

2) 경건의 정의

먼저 경건의 뜻을 알아본다면, 라틴어는 의무를 잘 지키는 행동(dutyful conduct), 의무감(sense of duty), 의(righteousness), 봉헌(devotion), 그리고 경건(piety)등의 뜻을 가진 낱말이다. 이 말의 형용사인 피우스(pius) 역시 도덕생활에 있어서의 경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말이 성서에 도입되면서(ε σ βεια) 종교적인 뜻이 더 강하게 되었다. 주로 바울과 베드로에 의하여 여러 번 사용되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디모데전서 4:7);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베드로후서 1:3);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주요 덕목의 하나로 베드로는 경건을 말하고 있다(베드로후서 61:6,7). 이 말을 영어권에서는 신성함(godliness)이라고도 번역한다.

이 말이 로마에서는 로마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 즉 충성, 애국심, 로마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희생심을 의미했다(Battles, *ibid*, p.15).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전체를 의미했다.

칼빈은 이와 같은 어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께 대한 아들의 복종(filial obedience)을 강조했다. 칼빈은 경건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를 이미 1537년에 작성 발표한 불어판 『요리문답서』와 1538년판 라틴어판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에 의하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공포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포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화된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주로 경외하며 존경하며,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를 배반하는 것이 죽음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를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경하는 데 있다.” 칼빈은 이러한 생각을 더 간결하게 『기독교강요』에서 설명한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그의 은총에 대한 지식을 가져다주는 사랑과 함께 형성된다”(『Inst』, I, 2, 1). 이것을 칼빈은 내적 경건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외적 경건을 말한다. 그의 저 『복음서의 조화』(On the Harmony of the Gospels) 중 마태복음 12:7에 관한 주에서 칼빈은 공무적 경건(officia pietatis)을 말한다. 그것은 주일의 예배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이 곧 공무적 경건이며, 그것은 용인된다고 한다. 그것을 그는 또한 종교



적 의무라고 부른다. 동시에 그는 이것을 빙자하여 그 뜻을 오해하고 그것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면 그들을 위선자라고 칼빈은 부른다. 이외에도 경건에 대한 칼빈의 사상은 『사들렛에 대한 그의 답변서』(Reply to Cardinal Sadolet, 1539)와 『시편 주석』 서문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경건이 단지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 태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전체에 관한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마음과 아울러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3) 경건의 두 방향

칼빈의 경건신학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그는 경건의 첫째 방향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짐새를 말한다. 그에 의하면,

(1)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종교가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신앙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Inst』, I, 2, 2). 여기에 있어서 두려움이란 말과 경외라는 말이 공용되고 있으나 신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존경과 의지심을 폭넓게 설명한 동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2) 하나님에 대한 순종

경건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을 의미한다. 칼빈은 원죄의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었기 때문에(『Inst』, II, 1, 4),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절대적 조건이다. 이 복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직접 복종해야 한다”(『Inst』, II, 15, 5). 그리고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독교강요를 끝맺는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5:29에서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억하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경건을 버리기보다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하자”(『Inst』, IV, 20, 32).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경건에 따르는 필수 조건이다.

(3) 예배

칼빈은 신실한 목회자인 동시에 예배를 매우 중요시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신자들은 예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하며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신자들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임해야 한다. 찬송가는 시편을 편곡하여 불렀으며, 설교자는 검은 색으로 된 가운을 입어야 했으며, 교회당 안에는 간단한 설교대와 나무의자만 허용되었다. 로마 천주교회당처럼 그림으로 장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설교시 조는 신자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할 정도로 칼빈은 예배를 매우 중요시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칼빈은 기독교강요 여기 저기에서 강조한다. “여기에 실로 순수하며 참된 신앙인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된 믿음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Inst』, I, 2, 21). “그러므로 이 교훈의 요점은 진정한 경건, 즉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다”(『inst』, II, 8, 8). 이토록 칼빈은 하나



남에 대한 경외나 경건은 곧 정당하고 진실된 예배의 형식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했으며, 따라서 예배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4) 기도

기도의 중요성은 그가 『기독교강요』 초판(1536) 6장 중 기도에 관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559년 최종판에는 총 52절에 걸쳐 기도에 관한 상세한 서술을 실었다. 이것을 보아 칼빈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시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III.20.1-52). 그 당시에도 기도의 무용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 주기 위하여 그는 세심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도에 대하여 그는 기도의 규범과 형식을 말한다. 사람들이 무쾌도적으로 그리고 무질서하게 중언부언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좋은 목회자의 심정으로 기도론을 전개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기도로 입증된다고 한다(행 10:2 주석). 칼빈은 기도의 규범으로서 네 가지를 말한다. 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과 대화하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② 기도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궁핍을 참으로 느끼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절히 생각하며 그 성취를 비는 열렬한 감정을 그 기도에 결합시켜야 한다. ③ 자기를 생각하거나 신뢰하지 말고 전적으로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만 생각하며, 자기의 욕심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 ④ 기도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하고 원하는 시기에나 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다(21:22 ; 막 11:24).

이것이 칼빈이 말한 기도의 규범이다. 칼빈은 기도를 무질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규모있는 기도의 형식을 말하며 그 형식이 곧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형식이라고 한다. 주기도문의 형식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원한다. 크게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요 사람은 그 다음이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경건의 명백한 증거이다.

경건의 둘째 방향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대한 자세가 곧 경건 생활의 실현이라고 본다. 칼빈은 이 점을 논함에 있어서 율법의 두 판을 생각한다. “경건과 의는 율법의 두 서판과 관계된다. 그러므로 삶의 순수성은 이 두 부분에 놓여있다”(눅 2:25 주석). 율법의 두 판이 다같이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므로 경건이 율법의 첫째 판과 관련되어 있다면, 둘째 판과도 관련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에 칼빈은 경건의 둘째 방향으로 그리스도인의 이웃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취급하게 되었다.

(1)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와 함께 이웃을 향한 의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경건한 자의 온전함은 있을 수 없다.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선한 양심과 믿음, 즉 한 마디로 말해서 경건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머리처럼 위에 놓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연유하는가를 본다”(『Inst』, II, 8, 51). “우선 도덕에 관한 율법을 본다면 거기에는 두 부분이 있다. 한 부분은 순수한 믿음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 또 한



부분은 진실과 애정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한다. 따라서 도덕에 관한 율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을 정돈하고자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 주신 의의 표준 곧 참되고 영원한 표준이다.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뜻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Inst』, IV, 20, 15). “왜냐하면 우리가 친절과 정직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건이 사람들을 향해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외향적 봉사를 자선이라고 한다. 경건은 사람들을 향한 선한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뿐 아니라 신앙과 기도도 포함한다”(디모테전서 4:8 주석). 이웃을 향한 우리의 자선 행동을 경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칼빈신학의 특징인 동시에 그의 신학의 강한 사회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화의 삶

칼빈은 믿음으로서의 의인 교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의인은 성화에 의해서만 완성된다고 함으로써 성화와 의인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혹자는 칼빈신학이 이신득의는 강조하나 성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나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끝이다”(딤후 4:8 주석)라고 한다. 다음의 인용구는 칼빈에게서의 경건이 우리의 삶 전체에 관련된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한다.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Inst』, III, 2, 26). “참된 경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에 대한 신뢰, 거룩한 삶으로의 의무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심으로 이 지식 즉 성서를 통한 천사에 대한 지식에 만족을 얻자”(『Inst』, I, 14, 4). “경건은 세상의 불법에서 분리된 우리를 참된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결합시킨다”(『Inst』, III, 7, 3).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은 일종의 경건의 연습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어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Inst』, III, 19, 2). 이와 같이 칼빈은 경건은 우리의 성화에서 결실을 본다고 이해한다.

4) 경건의 기원

칼빈은 신지식을 논할 때 신을 알만한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봉사하기 위한 헌신적 생을 가지지 않을 때는 그들의 자신의 증언으로써 저주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Inst』, I, 3, 1). 그러나 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발전하는 것은 신자들에게만 나타난다. 이것을 전제로 칼빈의 경건신앙의 근거를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경건의 가능성은 하나님의 창조적 은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신학자들 중에는 자연신학을 말하나 칼빈은 그것을 자연신학의 근거로 말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근거로 말한 것이다. 둘째로, 주어진 경건에로의 가능성은 성령의 역사로 현실화된다. “모든 사람이 경건의 길에서 전진하려면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야 한다”(『Inst』, III, 24, 13). 셋째로 경건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아는데서 우러나온다고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는 것과 그의 복음을 아는 것”(『inst』, IV, 15, 32)을 경건과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건전한 가르침은 경건의 규칙이다”(행 17:4 주석). 이와 같이 칼빈은 경건을 단지 신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두려움이나 기도나 명상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인간의 이해에 관계없이 말씀으로 쓰여진 성서를 토대로 거기에서 경건을 배우고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도 칼빈의 강한 성서주의를 발견할 수 있다.

5) 경건과 신지식

이때까지 칼빈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서 매우 초보



적인 질문이 생긴다. 그 질문은 경건의 대상인 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점을 인지했기 때문에 칼빈은 『강요』 전체를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과 보혜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책이라고 스스로 설명하고 있다. 이토록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구주로 믿기 전에 그 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 지식이 경건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신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고전적 전거(locus classicus)라고 하는 곳에서 칼빈은 2중적 신지식을 말한 다음(hinc duplex emergit eius cognitio, 『Inst』, I, 2, 1)에 그 신을 알려면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첫째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경외를 가르쳐야 하며, 둘째로는 그의 수중에 있는 모든 선을 갈망하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하여 그에게 찬송을 드리도록 가르쳐야 한다”(『Inst』, I, 2, 2). 참된 지식은 참된 경건의 출발점이며 근거이다. 이 지식이 없이 경건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신지식이 경건에 앞선다. 그러나 그 신지식은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지식과 경건에 대하여 칼빈은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로 말한다. “오직 독자들에게 이점만을 인정하게 하라.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셔서 그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하라”(『Inst』, II, 6, 4). “더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는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시며, 그 분밖에는 아무 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공경과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앞으로써 오는 것이다”(『Inst』, I, 2, 1). 여기에서 우리는 칼빈의 교육의 대원칙인 ‘경건과 학문’(Pietas et scientia)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병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건은 신지식에 이르는 첫 계단이요, 신지식은 경건이 걸어갈 방향을 가르쳐 주는 길 안내자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위에서 두 가지 큰 틀을 말하는 동시에 경건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했다. 특히 먼저 칼빈 신학을 관통하는 원칙이 있는가를 고찰했으며,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대다수의 칼빈학자들이 간과한 그의 경건 신앙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그런 다음 그것이 그의 경건사상이라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 고찰을 통하여 나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살펴보는 동안에 과연 그의 경건 신앙이 그의 삶과 신학전체를 관통하는 대원칙임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이 형성한 칼빈주의는 이 대원칙을 간과하고 그의 사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그것을 정통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칼빈주의적 정통주의는 루터교회의 정통주의와 함께 프로테스탄트 스콜라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지나치고 논리적이고 사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실천적 신학을 강조한 칼빈의 본래의 신학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다. 바르트와 브룬너는 이와 같은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위 신정통주의 운동을 전개했으나 그들 역시 정통주의의 낡은 틀에 함몰되고 말았다. 우리는 칼빈의 신학을 절대화해서도 안되고 유일한 선택으로 삼아도 안되지만 칼빈신학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한다.

출처 : http://www.theology.or.kr/mal/27s/27_special%20edition2_lee.html